

대립 제 3주일  
(자 선 주 일)

기도서	218 면(C해)
제1독서 : 스 바	3, 14-18a
제2독서 : 필 립	4, 4-7
복 음 : 루 가	3, 10-18

# 순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나는 너희에게 물론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멀지않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오신다(루가 3, 16b).

강론



## “한 해의 결산”

박 종 근 신부

12월은 한 해를 결산하는 달이다. 국가에서도 재정상의 결산을 하고 회사는 물론 상인들도 결산을 한다. 농민들도 이제 추수를 끝내고 한해 농사의 결과를 계산해볼 것이다. 가정살림을 꾸려나가는 주부도 지난 일년 동안의 살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아 볼 것이다.

경제안에서 경제를 통해 현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은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결산이라는 과정을 꼭 밟아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사람은 또 위와같은 경제활동의 결산만이 아니라 각자 자기 인생의 삶 전체에 대해서도 결산해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도 복음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들어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느님에게 자기의 생애 대해서 셈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마태오 15장, 14절~30절).

실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다. 자기 생명도, 자녀도, 재산도, 기타 모든 것들..... 하느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얼마나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하느님께서는 추궁하시리라!

언어와 피부와 종교가 서로 다르더라도 인류는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똑같은 존엄성을 지니며 하느님 앞에 만민이 평등한 것이다. 하느님은 또한 이 세상 만물을 인류에게 공동유산으로서 창조해 주셨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차별대우 한다거나 인권을 짓밟아서도 아니되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해서도 안된다. 또한 공동소유물인 이 세상의 재화를 독점해서도 안된다.

요즈음 문제로 제기되면서 빛어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비롯하여 세계 도처에서 야기되고 있는 국가와 국가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또한 한 국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층과 계층간의, 집단과 집단간의 갈등과 분쟁의 씨앗은 어디에 있는가!

“99원 가진 사람이 1원 가진 사람의 1원을 빼앗아 100원 채우려 한다”는 통속적인 말로 표현된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한 이기심”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가족도, 이웃도, 국가도, 세계도 다 외면하고 오로지 자기 개인만을 생각하는 “개인적 이기주의”는 무서운 것이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공소, 내 본당, 내 교구, 내 나라, 내 민족 등등만을 생각하고 위하는 “집단적 이기주의”(일명 : 짝지은 이기주의)는 더 무서운 것이다.

자기의 것을 다 내어 놓으시고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며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따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을(필립피서 2장 6절~8절) 본받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다. 각자 신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왔는지 지난날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자! 더우기 지금은 판공성사를 보는 때이다. 마지막 판공성사를 본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여 성사를 보자!  
(입실천주교회)



## 제 자리 좀 찾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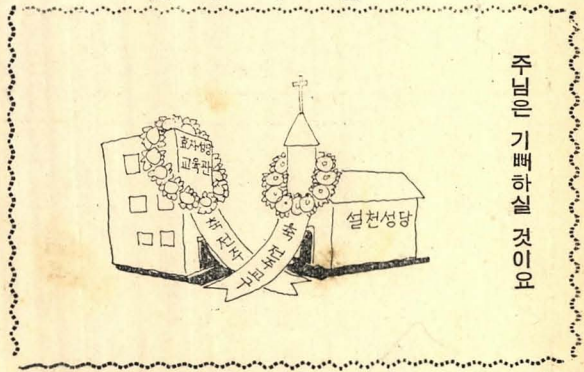
어느 일요일 아침에 텔레비전은 한 아름다운 여인을 소개했다. 그는 불구의 몸으로 의사가 되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소아마비 아이들을 바르게 살도록(正立) 도와주는 멋있고 훌륭한 여인이다. 기자와의 인터뷰 가운데 그는 이런 말을 한다. “내가 건강한 여자였다라면 아마 지금쯤은 멋이나 내고 놀러 다니기에 바빴을 거예요.”—짧은 이 한 마디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말이다. 역설같은 이야기, 불구인 자신의 처지를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마음씨가 흘러 넘치는 한 마디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다고들 말한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연고는 사람들이나 사회제도가 제각기 해내야 할 제 몫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래의 일을 제쳐놓고 벼슬자리 얻기에 혈안이 되거나 치부에만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신성해야 할 종교 영역에까지도 사납납기보다는 돈납기에 더 열중한 사이비가 활개를 치기도 한다. 이례서는 안된다. 군인은 국방에만 전념하고 학생은 공부에만 열중하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필요한 것이다.

소위 「의사당 사태」 수사만 해도 그렇다. 국회의 일은 국회에 맡겨라. 물리적인 행위의 원리부터 따져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게 놔두자. 결과론만을 가지고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태도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고름은 살이 안된다. 차체에 정치인들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며 원원치료를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가 변칙이 아닌 바른 자리를 잡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 아름다운 여인에게서 배워야 한다. 이 시대에 성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읽어야 한다. 바른 자리를 찾는 성찰과 다짐에 힘을 다해야 한다.

## 순정이 산책





□ 전 레

# \*\*\* 구 세 주 빨 리 오 사 \*\*\*

—대림절과 대림환—

대림절(待臨節)도 세계 주를 맞이하고 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조출한 마음 준비와 참회로써 “구세주 빨리 오사”를 부르며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지금은 우리 인류 역사 안에 오셨던 나자렛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참회로써 우리의 생활을 은총에 충만한 새 생활로 바꾸어 우리 현재의 생활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또 세말에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기의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대림절이 생기게 된 이유는 성탄을 중심으로 이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대림절은 450년경 라벤나에서 시작되어 갈리아(프랑스) 지방에서 부활절 준비와 비슷하게 40일간 성탄 대축일 전에 영적인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으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되어 왔다. 특히 프랑스 지방에서는 성 마르며노 축일(11월 11일) 다음 날부터 성탄 전까지,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재를 지키며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였기에 성 마르며노 40일이라고도 하였다.

오늘날과 같이 4주간의 대림절이 확정된 것은 7세기 초 교황 그레고리오 때부터였다.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과 세상의 종말에 재림하신다는 사상이 결부되

어 내려오게 되었다. 4주간으로 한 것은 4라는 숫자의 의미 때문으로 구약시대에 약속된 구세주를 기다리던 기간을 상징하며 약속과 성취의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대림절은 12~13세기부터 보편화되어 오늘날까지 전세계 교회에서 기념하여 오고 있는 것이다.

대림환(待臨環)에 세번재의 촛불을 밝힌다. 대림시기 동안 푸른 나무가지로 둥근환을 만들어 네개의 촛를 꽂아 구세주께서 어느 정도 가까이 오셨는지 알려줌으로써 마음의 준비를 갖추도록 촉구하기 위해 매주 촛불을 하나씩 늘려 켜가는 것이다.

푸른 나무가지 환(環)은 생명과 공동체를 의미한다. 둥근 원으로 만드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케 해준다.

대림환에는 초가 네개 있는데 이 초는 매주일 하나씩 늘려 불을 켜나간다. 물론 대림 4주일이 되면 네개 초에 모두 불을 붙이게 된다. 그러나 넷이란 숫자는 대림 4주간이란 것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즉 동서남북, 세상의 모든 곳, 세상 전부를 뜻한다. 그리스도의 빛은 세상 모든 곳을 두루 비추며 점차 완전한 영광을 향하여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 성서교실 ㉔

##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제 멀지않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실 분이 오신다」(루가 3:16)

세례자 요한 활동에 대한 루가의 기사는 마르코 자료와 Q자료로 구성된 것이다. 마르코 복음에는「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유다 전국 모든 사람이...요한에게 와서」라고 한 것처럼, 요한이 어떤 장소에 머무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요한이 있는 곳에 모여들었다면, 루가복음에는 요한이 요르단 강변을 거닐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고 되어 있다.

요한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분의 선구자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요한이 베풀 세례는 죄사함의 준비 세례이다. 요한이 베풀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사하는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실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불」이란 심판을 말한다. 착한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고, 악한 사람은 축정이처럼 불에 태워지는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마르코 복음은 「성령」만을 말하고 있지, 불은 말하지 않고 있다. 마태오, 루가가 사용한 Q자료는 심판이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없는 마르코는 성령에 의한 세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세례자 요한의 사명의 첫째는 민중의 죄를 적발하고, 죄의 회개를 촉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킨 것이었다. 그런데 요한이 부르짖는 도덕(3:10, 12, 14)은 극히 평범한 것이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극히 저급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저급, 평범한 도덕은 그가 제창한 데에 그의 존귀한 사명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필요한 준비였다. 그리스도교는 보통 사람의 보통 도덕을 요구한다. 요한은 이 도덕을 부르짖다가 죽었다. 고등 도덕을 지키겠다는 도덕전문가(바리사이와 사람)를 예수는 아주 싫어하였다.



### 연 탄 절 약 기

과학적 입증(고교 교과서에 원리 나옴)

특징: 연탄이 오래 탄다(舊 4~5시간).

혹검이 없이 깨끗이 탄다. 마지막까지 화력 만

점. 열손실 방지. 가스의 재연소

\* 적은 자본으로 고소득 보장 소비자가격: 2,000원

시·군단위 대리점 모집(이리시 제외)

한양물산 전북총판 대표: 박승신

이리시 남중1가 537-10 ☎ 52-3682·6-0938

전북의료보험조합지정병원

## 마기환안과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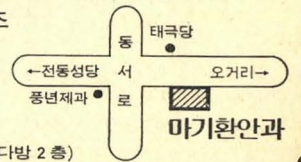
부설: 새한콘택트렌즈

원장 안과전문의 마 기 환

한 남 회(바리시티)

TEL. 75-2203

(시집가는날. 태극당 건너편 불새다방 2층)





# 교 구 소 식

1. 제3기 성서 40주간 수료식 : 19일(목) 오전 10시(수료미사)  
작품전시회-성경가운·성경카드·이스라엘 지도  
※ 참조-1기 2기 수료생 및 4기 신입생, 관심있는 분 모두 초대합니다  
※ 제4기 개강-1월 9일(목) 10시
2. 성소자 피정(신학생 후보생)  
일시-21일(토)~22일(일), 21일 오후 3시 등록, 주제-제단으로 나아가리다  
대상-고3·대·일반(남)·성소자 및 관심있는 분, 장소-센타  
회비-4천원, 지참물-필기도구·세면도구·미사도구
3. 8기 예비자 영세식 : 22일(일) 오후 3시  
장소-가톨릭 센타 강당  
주례-박정일 주교
4. 전주교구 대학생 연합회 마니피캣 합창단 정기총회  
일시-23일(월) 오후 5시  
장소-가톨릭센타 내 교육관  
※ 마니피캣 합창단 반주자 모집
5. 남성 제23차 꾸르실료 : 1월 3일~6일  
여성 제20차 꾸르실료 : 1월 17일~20일  
※ 수강희망자는 신부님과 상의 바람
6. 전동 글로리아 성가대 제4회 정기발표회  
일시-21일(토) 오후 7시 30분, 장소-전동천주교회

※ 가정기도 시편 : 8,1-9, 독서 : 로마 5,1-5 복음 : 루가 11,27-28

## ✿ 잠깐!

이번 성탄은.....

봄, 여름, 가을... 좋은 날들을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추운 날 오셨어야 했을까요? 금방 통채로 무너져내릴것만 같은 길은 잿빛 하늘처럼 마음이 무거워요. 오늘 아침, 성당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 앞에 아직 겨울 옷 한벌 언어입지 못해 얇고 찌든 누더기를 걸고, 남아있는 자들이 버린 고물이라도 주우려고 다리를 무겁게 끌며 가는 어느 아저씨의 뒤를 따르면서-, 그나마 화려하지 않게 두텁지 않게 차려입은 내 행색에 스스로 조금은 위로하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주어지는 자유의지라는 것에 책임을 돌려보면서 성당에 들어서니...

「사랑의 송가」가 들려오고 「구세주 팔리오사...」가 울려 퍼지고, 「...주십시오」 「...주십시오」를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드리고-. 글썽요, 미사전에 보았던 그 아저씨의 모습이 빠지지 않는 가시로 남아 마음의 아픔은 자꾸 도지고-. 십자가에 메달려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혈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억울하고, 슬프고, 추운자들을 위해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따르겠다는 우리가 주님이 위하시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부끄럽게 생각되는 겁니다.

내 삶의 처지에 부끄러워 할 줄 알고 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훈훈한 사랑의 손길이 내 이웃에 쫘우 전해지는 성탄을 맞고 싶습니다.

-어느 교우의 편지-

## 요십이 (645) 김병오



### “육완순”현대무용”전주대공연

#### “수퍼스타 · 예수 그리스도”

성탄대축일을 맞아 교우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의 신비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때 : 12월 16일(월) · 17일(화) 오후 7시

곳 : 전북 학생회관

예매처 : 전북은행 본점 및 각 지점

입장료 : 특 석 5,000원  
일반석 3,000원

**최 유 경 (유리안나)**  
**미용실 미용학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 대어  
학생 수시 모집  
해의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③ 2496 ④ 8653

**\*비디오 특수 촬영\***  
최신형 전자비디오 촬영기 설치  
결혼·회갑·각종행사 등  
마이크업프, 금성, 삼성  
가전제품 공장도가 판매  
**백운전자**  
☎ 3-0231  
전주 태평동지점  
(전북은행 옆)

**정신과학무료세미나**  
고도의 두뇌 및 정신활용법  
1차 : 1월15일 오후 2시·7시  
2차 : 1월18일 오후 2시·7시  
장소 : 전주 가톨릭센타  
주최 : 한국정신과학연구회  
두뇌과학자 및 정신과학자에 의해 30여년간 탐구 개발된 기적의 정오적 활용기법을 단시간내에 습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 많은참석바람

**성체유치원**  
**원 아 모 집**  
모집인원 : 80명  
문의전화 2-8408  
\*성체수녀원에서 경영합니다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수·사 2-7032 아파트 75-6389

주임신부 김 웅 태 보좌신부 김 의 철 사도회장 이 흥 재

- 1. 판공성사 일정: 국민학생들-15일 오후 2시~6시까지, 유아아파트-16일 오전10시부터(10동105호), 인후아파트-16일 오후 2시부터, 인후동 전체-17일 오전 9시부터, 남노송동-18일 오전 9시부터, 유아동-18일 오후 2시부터, 중노1가동-19일 오전 9시부터, 중노2가동-20일 오전 9시부터, 직장인들-21일 오후 2시~6시까지, 중고생들-22일 오후 2시~6시까지, 기타지역-23일 오전 9시부터 각지역의 성사주는 시간은 오전 9시~12시까지, 오후 2시~5시까지. 일정과 시간을 엄수 바랍니다
2. 교무금 납부의날: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교무금을 숙히 완납하여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 합시다
3. 영세자 선별예식: 22일 오전 10시, 영세식은 24일 오후 2시, 대부모님과 오전 9시30분까지 나오세요
4. 월례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5. 최부제님의 서품준비에 힘쓰 바랍니다: 본당에 게시된 품목의 독지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6. 전자출간 기금 속히 납부합시다: 성탄대축일에 전자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22일까지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7. 금주 전례담당: 제1주, 차주는 제2주가 담당입니다
8. 불우이웃돕기: 차주 특별헌금(2차) 봉헌이 있음
9. 매주 수요일 가족기도회에 빠지지 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478,471원 교무금: 1,884,500원 신축금: 107,000원

- 7. 성탄 섬가대회: 1구역 1팀씩 참가, 구역장님 22일까지 참가자 명단과 목록을 접수해 주세요
8. 청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청년회원 참석 바람
9. 객지에 있는분 섬사표 보내주세요
10. 교무금을 완납합시다
11. 금주전례: 해설-황남용, 독서-한성남·강성호 봉헌-최상옥씨 부부
지주전례: 해설-안현주, 독서-양대환·김병주 봉헌-이정우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09,350원 교무금: 195,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사무실 2-2276 수녀원 2-2276

주임신부 김 반 석 사도회장 김 낙 균

- 1. 영세식: 22일 오후 2시, 오늘(15일) 오후 2시에 영세받으실 분은 전체교리가 آیا오니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2. 85년도 교무금 및 사제양성후원금 신입하신 분께서는 속히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성모회: 오늘(15일) 공식미사 후
4. 판공성사: 마음리공소-17일 오전 10시
5. 직원모집: 총무(관리장) 1명, 운전면허소지자 경리 1명(부기, 주산 자격소지자), 마감-18일까지
6. 축! 결혼: 오늘(15일) 12시30분 신랑-박춘기, 신부-문미옥
7. 다음주 전례

Table with 5 columns: 미사, 해설, 1독서, 2독서, 기도. Rows include 첫미사, 공식미사, 저녁미사 with corresponding names like 최창림, 박경환, 조정웅, 손유연, 윤정순, 성심회, 김청운.

□ 지난주 봉헌금: 일반-305,300원 중·고생 11,530원 주일학교-8,460원 계-325,290원 교무금: 1,217,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사무실 2-5238 수녀원 2-5238

주임신부 권 영 균 사도회장 김 성 원

- 1. 사도회 총회: 오늘 저녁미사 후(임원개선) 참석하실 분-사도회임원, 감사, 반회장, LM단장, 성우회장, 애령회장, 학생회장, 빈첸시오회장, 자도회장. 빠짐없이 참석 바람
2. 성우회: 25일 자정미사 후
3. 자모회: 15일(오늘) 공식미사 후
4. 예비자 집중교리: 16~19일 저녁 7시30분 참고-20일 저녁 7시30분
5. 성탄준비 섬가연습: 16일부터 오후 2시
6. 빈첸시오회: 김순희 구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여정 신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추계 판공성사 일정: 오전 10~12시, 오후 2~5시, 저녁미사 후, 18일-다가동·중앙동·교사동, 19일-태평동·완산동·화산동, 20일-진북동·기타, 21~22일-학생·직장인
8. 86년 예산액 4천460만원 교무금 10% 인상: 십일조 정신으로 봉헌합니다, 85년도 교무금 속히 완납바람
9. 자선의날 특별헌금: 15일(오늘) 대림 3주일 해외선교 특별헌금: 다음주일(대림 4주일)
10. 병자 판공성사: 17일, 병자 계신가정 사무실에 연락
11. 성탄을 기해 군장병들에게 위문품품 접수: 사무실
12. 축! 결혼: 15일(오늘) 12시, 복자성당 신랑-김창환(마지아)군, 신부-장은숙양 토-순결하신 어머니pr
13. 차주 성당청소: 월-다위의 탐pr, 토-셋별pr
14. 금주전례: 해설-최희숙, 독서-①양규철 ②황마리안나 차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전 건 ②조성호 성탄자시미사: 해설-유덕열, 독서 ①김성철 ②양규철
□ 지난주 봉헌금: 181,850원 교무금: 835,250원

(전동)

사제관 6-6208 사무실 2-3222 수녀원 2-8347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신부 김 기 곤 사도회장 김 병 오

- ※ 사도임원 개편: 회장-김병오, 부회장-신일균·고수창, 감사-이길섭·주낙천
1. 성화회: 공식미사 후 2. 교미시움: 오늘 오후 2시
3. 중·고학살회 성사회전: 원고모집 15일까지
4. 영세식: 22일 오후 1시30분
5. 글로리아 섬가대 제4회 정기발표회: 21일 7시30분
6. 추계 판공성사 일정: 17일~21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6시, 17일-전동·중앙동·다가동, 18일-동교동·서교동, 19일-동완산동·서완산동, 20일-봉남동·남노송동, 21일-학생·직장인·기타동
7. 감사: 교도소 영세식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여러분께
8. 85년 교무금 속히 납부해 주세요
9. 다음주 봉헌담당: 신일균 부부
10.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최종만,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이주철, 독서-①배한수 ②고수창
□ 지난주 봉헌금: 834,680원 교무금: 754,5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사무실 2-0915 수녀원 2-4804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도회장 이 정 선

- 1. 신임 사도회 임원(부장·차장): 선교부장-부회장결임·차장-권성윤, 교육부장-유병환·차장-박수환 재경부장-이창욱·차장-김홍두, 전례부장-강정주·차장-김인규, 봉사부장-최승기·차장-김정근
2. 성탄 판공성사: 오늘 오전 9시~오후 1시, 저녁 7시~9시
3. 성탄영세자 특강: 17일~20일 저녁 7시~9시 ※영세희망자는 필히 본당신부와 개인 면담할 것
4. 주부 섬서대학: 18일 오전 10시 고린토전서 ⑤
5. 건축헌금: 15만원-이윤영성, 10만원-신연옥·이중권·송영순·황용하, 2만원-박석기·김용무, 1만원-황동성당·조순희·장옥자
□ 지난주 봉헌금: 439,040원 교무금: 739,000원 건축헌금: 620,000원

(상관)

사제관 79 사무실 79 주임신부 김 영 신 사도회장 이 정 우

- 1. 오늘 2차헌금 있습니다: 자선의 날
2. 판공교육: 공식미사 후
3. 판공성사: 16일 저녁 6시까지 성사표 받으세요
4. 구역 대의원총회: 17일 오전 10시
5. 가정방문: 18일-남관·기타구역(한동산·문길성)
6. 병자 판공성사: 19일 10시부터, 구역장님 오늘까지 신청해 주세요